

동부권

“잘 있거라 내 고향”

순천 신대마을 주민 100여명 눈물의 송별식

택지 개발로 250여 가구 이주

“고향산하를 두고 떠나기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을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양채순(81)할머니는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을 눈시울을 적셨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마을 주민 100여 명은 지난 11일 마을회관에 모여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신대지구는 지난 2003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로 지정 돼 2007년 12월 개발이 시작됨에 따라 지구내 5개 마을 주민 600여명(250여 가구)은 터전을 옮겨야만 한다.

현재 보상이 99% 정도 끝나 각 마을별로 1~2가구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순천시내로 이사하거나 자식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 등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오는 2011년 단지가 완공되면 다시 돌아와 살게 된다.

부녀회장 정정남(71)씨는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좋아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30여 년이 됐다”며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잘 따라주고 격려해줘 부녀회 장치를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배남휴(46) 주민대책 위원장은 “3년간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수익사업을 만들고 사유재산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사전에 대처하지 못해 토지나 건물의 보상액보다 입야 보상액이 다소 낮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보상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순천시청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계 이수형씨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대마을 새마을 지도자 배대민(43)씨는 “2011년 개 개발이 모두 끝나 입주 단지가 들어서면 다시 고향에 돌아와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단지 역할을 수행할 순천 신대지구 단지는 오는 2010년까지 총 사업비 4천756억 원을 들여 주거용지를 비롯해 상업·업무·산업용지, 학교용지, 골프장, 공공시설 등 모두 299만 7천95㎡를 조성해 인구 3만 명을 수용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김은종기자 ejkim@



유채꽃 축제

보성 19일까지 다채로운 행사

“녹차의 고향” 보성에는 유채꽃도 있습니다. 보성군은 17~19일 조성면 봉능리와 득량면 삼정리 들녘에서 유채꽃 축제를 개최한다.

보성군이 녹색성장의 하나로 농림수산물식품부와 함께 조성한 210ha 넓이의 바이오디젤 생산 유채꽃 시범단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유채꽃 길 탐방, 청보리밭 두렁 걷기, 노래자랑, 유채꽃 사진전시회, 전, 막걸리 등 유채 음식, 녹차 음식 체험, 지역특산물 판매 등 행사가 마련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유채가 농가의 고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육성하겠다”며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축제가 많은 관심을 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성=선성근기자 sun@

고흥 상습침수지구 개선복구 박차

209억 들여 고희읍·도양읍 배수관 매설

고흥군이 상습 침수지구 개선복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흥군은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희읍과 도양읍의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비 209억 여원을 확보, 침수지구 개선복구사업을 벌이고 있다.(사진)

고흥읍의 경우 기존도로 지하에 배수관을 매설하고 고희 회타운에서 호형 4차선 고가교까지 시가지를 우

회하는 배수로를 설치, 계획홍수량 초당 410ℓ 중 93ℓ를 분산시킨다. 도양읍 역시 배수펌프장에서 녹동고 앞(녹동천)까지 우회 배수로를 설치하고 배수펌프 능력을 기존 용량보다 3배(초당 12ℓ) 늘린다. 고흥고 관계자는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5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 군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iu@



16일 곡성군 옥사동면 공복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지난 가을에 수확해 땅속에 묻어두었던 우렁을 꺼내 출하하고 있다. 유럽 원산의 귀화식물인 우렁은 장아찌를 만들거나 조림을 해 반찬으로 즐겨 먹는다. /위직량기자 jrwi@

“농협 지역민 생활센터 역할 충실해야”

장태평 농림수산물식품장 순천농협 방문

장태평 농림수산물식품장 장관이 최근 순천농협(조합장 강성태)과 순천시 낙안면을 방문했다.

장 장관은 순천농협 파머스마켓은 유채꽃 판매코너와 APC 학교급식사업, 전처리사업, 소포장사업 등을 둘러보고 순천농협의 경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았다.

이어 (사)한국 벤처농업포럼이 주관하는 순천시 농업인들과 한국농식품산업 관련 토론회 ‘방방곡곡 에그로 스쿨(Agro school)’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장 장관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요구하고는 조합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순천농협의 사업방향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역농협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하며 지역민의 생활센터로서 역할도 충실히

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태 조합장은 “순천시 12개 지역농협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경제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 조합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 사업구조로 농민 조합원의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先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순천 여수 광양 고희 보성 구례

본 부 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국장 이진택 부장 박양규 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종 기자 선성근 기자

곡성군 대규모 매실단지

압록 등 3개 마을에 60~70ha 조성

곡성군이 대규모 매실단지 조성에 나선다.

16일 곡성군에 따르면 오는 2011년 까지 옥곡면 압록리, 죽곡면 봉정리와 하한리 등 3개 마을 일대에 60~70ha 규모의 매실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성사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군이 이곳을 매실단지 조성 적지로

계획한 것은 이미 소규모 매실농사를 짓는데다 주변 일야의 오래된 밤나무에 대한 수종갱신 필요성과 함께 주변 경관이 좋아 매화단지 조성에 따른 관광 효과도 크게 기대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곡성이 이 같은 대규모 매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올해 나무를 심으면 2~3년 안에 매실도 수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명물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보성군 ‘맞춤형 농정’ 호평

을 34억원 들여 육묘용 상토·볍씨 지원

보성군이 고품화율과 일손부족,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민에게 육묘용 상토와 우량 볍씨·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농업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을 위해 올해 34억 8천여만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중 비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으로 7억 6천만원이 농가에 지원된다.

또 비 우량종자대 5억 2천만원과 유기질 비료 구입용 22억원 등을 지원해 지역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사업은 일손 부족과 비료 값 폭등 등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비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은 농촌의 노령화와 부녀화로 부족해진 일손을 해결하고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되고 나서 농가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부터는 보조율을 80%까지 확대했다.

정중해 군수는 “보성군은 농림업 예산을 전체 예산의 32.6%까지 확보할 정도로 적극적인 농정을 펼치고 있다”며 “관내 농업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되는 현실에 맞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선성근기자 sun@



농협곡성군지부 영농철 일손돕기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지부장 이영기)는 지난 15일 곡성을 신리마을 하우스에서 영농철 일손돕기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곡성군 지부 임직원 20여명은 딸기 수확 및 하우스 속비닐 제거 작업에 나섰다.(사진)

이 폭 필요한 시기에 농협 직원들의 도움으로 영농준비에 큰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이영기 지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영농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농협봉사단을 중심으로 농촌봉사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Large advertisement for KIN (주)국민법률경제매, featuring legal and real estate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062)364-8700, 010-4608-3700 and a list of services.